

2011년 오리산업 동향 및

201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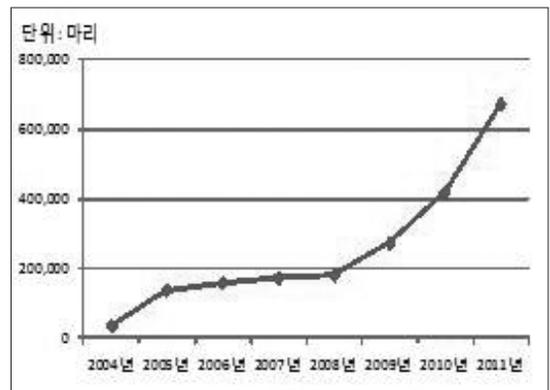
이정민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연구원

오리산업에 있어 2011년은 참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다. 2010년 말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연초에는 상당수의 종오리가 매몰처분되어 일시적인 병아리 공급 부족상황이 발생하였고, 오리가격은 근래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오리 입식이 급증하면서 산지가격은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소비까지 주춤해져 하락세의 폭이 더욱 커져 오리업계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2011년의 오리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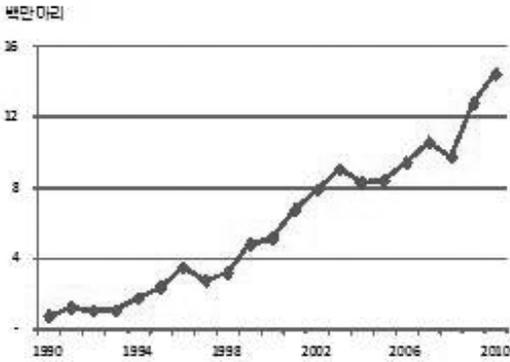
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F1종오리가 PS종오리로 교체되는 것은 종오리 수입마리수 통계에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2004년 3만 3,220 마리에 불과하였던 종오리 수입이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41만 7,230마리가 수입되었으며, 올해(1~11월)에는 67만 1,600마리로 전년보다 61.0% 급증하였다. 종오리 사육규모 증가와 함께 오리 사육마리수도 크게 늘어 2010년에는 1,439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그보다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야기한 2011년 종오리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으

오리 사육 동향 및 전망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되어왔던 F1종오리 사육이 2010년 7월부터 금지되면서 기존의 F1 종오리가 점차 PS로 바뀌기 시작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으로 생각된다. 병아리 품질, 질병, 사료효율, 생육등의 측면에서 오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중 하나였던 F1 종오리가 점차 PS로 환원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



〈그림 1. 종오리 수입마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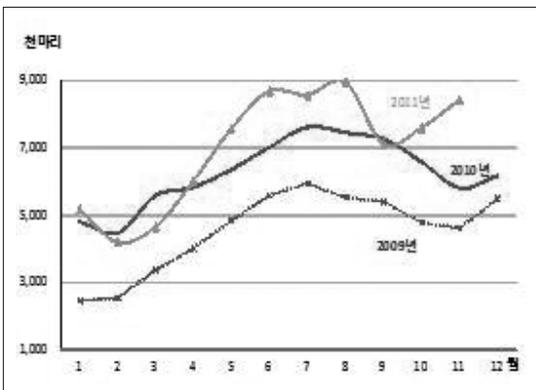


〈그림 2. 오리 사육마리수 변화 추이〉

로 미루어 볼 때, 2012년 오리사육 마리수는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고기 공급 동향

오리 사육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압마리수도 동반 상승하여 2011년에는 전년보다 13.5% 증가한 약 8,500여만 마리가 도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영향으로 사육물량이 줄어들어 1~4월 도압마리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2.9% 감소한 2천



〈그림3. 오리 도압마리수 변화 추이〉

만 마리에 불과하여 공급부족에 따른 오리가격 급등을 가져왔다. 산지가격이 급등하자 곧 오리 입식이 크게 증가하여 5월부터 도압마리수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1월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무려 45.3%나 많은 842만수가 도압되었다. 이와 같은 도압물량 증가는 곧 공급과잉을 가져와서 6월이후 오리 산지가격은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고기 수요 동향 및 전망

앞서 살펴본 오리 사육규모 증가 원인은 기본적으로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초 구제역 발병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오리고기가 대체육류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어서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역시 오리고기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는 홍보가 지속되면서 오리고기 소비 증가 속도가 한층 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국내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오리고기 소비는 전반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기관에서 2012년 경제 성장률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경기침체가 오리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고기 가격 동향 및 전망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에 따른 오리 공급물량 감소와 구제역 발병에 따른 돼지고기 및 일

| 집중탐구 |

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 대체수요가 발생하면서 오리 산지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5월 오리 산지가격은 생체 3kg에 10,248원으로 전년 대비 65.9%나 상승하였으나, 이후 오리고기 도압이 증가하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외식수요가 감소하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오리고기 공급과잉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리 산지가격은 12월 현재 5,700원/3kg으로 전년 대비 18.6% 하락한 상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리고기 생산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써 오리 업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적시에 소비

되지 못한 오리고기가 재고로 적체되면서 냉동비축 물량이 약 1,000여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도 오리 산지가격은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격 약세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사육물량을 일정부분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친 병아리 입식 자제와 함께 F1 종오리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